

새 책

▶까미노에서 만난 흰수염고래(여창수 지음)= 25년 간 이어왔던 기자 생활을 멈추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길. 저자는 그 낯선 곳에서 마음 속 '흰수염고래'를 마주했다. 그것은 끝없이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였다. 40여일간의 여정에서 남긴 짧막한 생각이 삶을 곱씹는다. 도서출판 각. 1만5000원.



▶제주어 마음사전(현택훈 글·박들 그림)= 제주에서 태어나 시를 쓰는 시인이 제주어로 어린 시절 추억을 풀어놓았다. 제사 때만 '곤밥'(쌀밥)을 먹고 '가메기'(까마귀)처럼 몰려다니던 소년이 어른이 돼서 지금은 사라진 기억을 불러냈다. 할머니와 어머니 곁에서 듣고 자란 제주어를 살리려는 마음도 담겼다. 제주어를 품어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는 시인의 관심이 묻어 나온다. 길은사람. 1만5000원.



▶굴사람(김성라 지음)=제주 이야기를 쓰고 그리라는 작가의 두 번째 책이다. 첫 책 '고사리 가방'이 고사리와 제철나무, 봄의 숲을 담았다면 '굴사람'은 상큼한 12월의 굴을 건넌다. 겨울이면 늘 거르지 않았던 굴 수확의 체험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렸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 앉아 한 알 한 알 까먹으면 좋을 이야기다. 사계절. 1만3000원.



▶유튜버가 말하는 유튜버(런업 지음)= 성인 10명 중 6명이 유튜버를 꿈꿔 봤다는 설문 결과가 있을 만큼 '대세 직업'이다. 유튜버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증도 크다. 이 책은 유튜버 16명의 이야기를 담아 그 방향을 제시한다. 현직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인터뷰에 나서 그들의 일과 일상, 보람과 애환을 들었다. 부키. 1만4800원.



▶잔을 부딪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야(시요일 엮음)= 국내 최초의 시 큐레이션 앱 '시요일'의 시선집이다. 오래도록 읽히고 앞으로도 사랑 받을 시를 선정해 엮었다. 공통점은 '술'이다. 시인들이 저마다의 써 내려간 '술'에 대한 시는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 좌절과 위로를 말한다. 책장을 펼치면 인생의 한 페이지가 펼쳐진다. 미디어창비. 1만2000원.



▶선물의 문화사(김풍기 지음)=선물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뜻을 전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에 집중해 사람들과 함께해 온 선물 이야기를 실었다. 임권부터 사대부, 민초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인간사를 풍요롭게 이끈 19가지 선물에 대한 조명이자. 이를 통해 사람살이와 시대상,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 느낌이있는책. 1만5500원.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듬돌·뚝통시... 무심히 흘러보낸 전통들

네메스의 '신비, 성실, 모험의 제주 전통 경관'

신유가 사회 돌하르방 등 문화경관 변화 과정 담아

미국 텔리도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네메스. 그는 1970년대 초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제주를 찾았다. 그 길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제주의 풍경은 그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밭 중간 중간에 있는 묘지 때문이었다. "농지가 부족한 제주에서 밭에 묘지가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그같은 궁금증은 그를 제주 연구로 이끌었다. 1984년엔 UCLA 지리학과에서 '제주도의 농부 경관'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네메스 교수는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제주도 문화경관에 초점을 두고 전통문화와 역사를 다룬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해왔다. 2006년에는 제주에서 열린 국제심학회를 위해 그것들을 모으고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엮인 책이 '신비, 성실, 모험의 제주 전통 경관'이다. 70년대 이후 제주섬에 눈길을 두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글이 담겨있는 책으로 표제처럼 신비, 성실, 모험 3개의 장에 걸쳐 사라져가는 제주 전통을 기록했다. 첫장에 실린 신비 편에는 한라산을 '하늘의 숨결을 이어주는 통로'로 봤고 풍수 실천의 결과물인 제주도 풍수 지도를 문화유물로 소개하고 있다. 돌하르방(돌하르방)에 대한 고찰도 보인다. 그는 제주도 거주기 입구 도로에 쌍을 이룬 돌하르방의 형태, 배열, 기능은 조선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신유가적 관료가 전 영토에 이상적인 사회를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계획과 시도로 해석했다. 성실 편에는 제주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과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뚝통에 주목했다. 돼지우리 변소(뚝통시)는 기술을 그다지 적용하지 않고 경작을 하는 토지에 적합한 장기적인 투자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과거의 농업 활동에 포함된 지혜를 드러낸다고 했다. 경운기를 트로이 목마에 비대해 제주도의 가난한 농부들이 과거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미래는 빼앗겼다고 근대화 과정 초기 경제 성장의



어두운 면도 들여다봤다. 모험 편에는 1653년부터 1930년대 중반 사이에 제주도를 방문한 유럽과 미국인 여행자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헨드릭 하멜, 지그프리트 겐테 등으로 이들은 실제로 제주의 경관을 보고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났다. 철자법은 약간씩 다르나 이들 모두 제주도를 '벨파트'로 표기해 놓았다. 여자인 권상철 제주대 교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네메스 교수가 제주를 제주인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아닐까 여겼다"며 "제주의 가치를 찾아내고 사랑한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제주를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제주학연구소에서 제주학 총서. 푸른길. 1만6000원. 전선희기자

심장의 허기 채우려 쓴 단편들... 다시 삶

제주 문혜영 첫 소설집 '전갈자리 아내'

제주 문혜영 작가는 신춘문에 당선인 줄이 아니었다고 했다. 20년간 글을 써왔고 마침내 2007한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고통을 안겼다. 작가는 뒤늦게 "당선작을 이겨낼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늘 창작의 발목을 잡기 일쑤였다"고 고백했다. 그동안 시, 소설, 수필 등 닥치는 대로 글을 쓰며 작업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다는 그가 첫 소설집을 내놓았다. 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을 표제로 내건 '전갈자리 아내'다. 창작집에는 10년 동안 써온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렸다. 소설을 써야만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시절을

건너며 심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둘 완성해간 작품들이다. '전갈자리 아내'는 아내와의 외적 갈등과 화자의 내면의 소리를 전갈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그려냈다. '충격적인 내용의 작품'이라는 심사평(오성찬)을 들었던 소설이다. '거미'는 '전갈자리 아내' 이후 10년 만에 쓴 작품으로 그 시간 만큼 수많은 퇴고를 거쳐 세상 밖으로 나왔다. '탄탄한 문장력이나 구성력'(안수길)을 갖춘 소설로 2017년 동양일보 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 주인공을 해져 깊이 숨어사는 물고기에 빚낸 '아이스 피쉬'도 문학상 수상작이다. 2016년 경북일보 문학대전에서 상을 받은 소



설로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 속에 특별함을 담아냈다. 연쇄살인을 다룬 '중독', 성폭력에 노출된 유년의 그늘을 짙은 '술', 반려동물을 통해 이 시대 소외된 공동체를 돌아본 '아주 가벼운 인사', 사랑의 시간성을 탐색한 '포르말린', 평범하지만 빛나는 인생의 순간을 포착한 소품같은 글 '로제트'도 볼 수 있다. 파우스트. 1만3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사진집 '... 여순사건'

71년 전 진실, 사진으로 한걸음 더



자식 잃은 어머니의 오열. 이 사진은 라이프지에 실렸다.



이 땅의 공권력이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던 시절, 이방인의 기록이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때가 있다. 가깝게는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왔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그랬다. 제주4·3사건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1948년 여순사건엔 소설가이자 사진가인 칼 마이던스(1907~2004)가 있었다. 당시 미국 타임-라이프지 사도요국장으로 근무하던 마이던스는 한국에 입국해 특파원으로 활동했고 여순사건을 담은 사진을 남겼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마이던스가 촬영한 여순사건 사진을 전량 입수해 번역한 사진집을 냈다.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사건'으로 중북을 제외한 310여 장 중에서 98장을 골라 해설을 달아놓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달 만에 발발한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파병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 애국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우리들을 출동시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풍토를 학습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여순사건의 진압 과정에 지역인 대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했다. 유가족들은 부당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의 굴레가 씌워진 채 수십년 세월을 통한 침묵으로 참고 견뎌야 했다. 제주4·3이 걸어온 길과 너무도 닮았다. 마이던스의 사진들은 진압군 작전, 민간인 협력자 적발, 여수 중심가 화재까지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사실들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나 공문서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세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이끈다. 외국인 기자여서 진압군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었고 그런 이유로 진압군의 활동을 찍은 사진이 많지만 자식잃은 어머니의 오열 등 시민들의 움직임과 감정도 놓치지 않았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사진이 촬영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진에 담긴 수많은 얼굴들의 표정을 읽어내고 71년 전에 모진 경험을 했던 여수 순천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는 일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다. 지영사. 5만원. 전선희기자

novita
A KOHLER COMPANY

노비타 스파비데 출시 기념 이벤트

“비데에 스파를 더하자 행운을 더하자!”

이벤트기간 | 9월 18일 ~ 10월 31일
당첨자 발표 | 11월 15일

novita 노비타 제주점 (구, 제민일보 맞은편)

신광로터리 | 빽스 | 요양병원 | 마린사거리 | 마리나호텔 | 신제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EVENT 01 구매 인증 경품 추첨 이벤트

1등 휴테크 안마의자

2등 THE GOLD 999.9 3.75g

3등 50000

푸짐한 경품

1등 휴테크 안마의자 17+ [1명] 3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 권 [10명]
2등 순금 골드바 1톤 [5명] 4등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명]

이벤트 대상 제품
BD-TE91M / BD-TD90M / BD-AFD500 / BD-WD60 / BD-AE91

EVENT 02 특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

프리미엄 BD-TE91M

프리미엄 BD-TD90M

3D 무브 3way 노출 탈취 + 자동 디스펜서

399,000원 379,000원

6만원 상당의 정품 필터 (6개)

BD-AC50N NEW BD-AE91

3way 노출 3D 무브 + 정품 필터 (2개)

199,000원 269,000원